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대학		학 과 (학부·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 별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상해봐, 천국이 없다고
노력하면 너무 쉬워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고
우리 위에는 하늘뿐이라고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산다고

상상해봐, 어떤 국가도 없다고
그건 어렵지 않아
누구도 그 때문에 죽이거나 죽지 않고
또 어떤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다고

넌 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젠가 네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되겠지

상상해봐, 어떤 사유(私有)도 없다고
넌 상상할 수 있을 거야
탐욕도 굶주림도 없다고
모두가 형제라고
상상해봐,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공유한다고

넌 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젠가 네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되겠지

(나) 자유주의자의 가장 기본적 주장은 개인 자유의 보장이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를, 개인 자유의 보장을 사회의 기본 원리로 보는 주장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자유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며, 인간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갖고 있고 국가, 조직, 이념 등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으며, 오직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위해 개인을 도구화하여 희생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 사상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개인은 사회생활에서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타인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 각자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하여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직 자신에게 귀속됨이 당연하다. 즉,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는 자신이 향유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도 홀로 책임져야 한다.

이 사상가들은 인간적 자기실현의 다원적 모형을 전제하는 만큼, 개인적 자율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다양한 모형 개발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개방적인 사회통합체를 내세우며 이러한 다양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구조를 옹호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질서에서는 옳은 것이 좋은 것에 선행하며 이로 인해서 ‘얕은 공동체’(shallow community)만이 용납된다.

(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존재라면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공동체의 규범 또는 이익 사이에 긴장이 빚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남들과 함께 있는 공공장소에서라면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묘지 크기도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의 서너 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하게 제약될 수 있으며, 개인들의 욕망과 가치, 신념 등은 사회 속에서 표출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격리된 개인은 생각할 수 없듯이 개인 없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즉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발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 속에서 개인의 욕구나 가치관이 타인의 그것과 대립하거나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하기 나름이다.

(라) 인간의 유일무이한 개성은 자연과 의지 그리고 운명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의 자명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심기를 느끼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개성의 말살은 법적, 정치적 인간의 분노와 도덕적 인간의 절망보다 훨씬 강렬한 전율과 공포를 야기한다. 실제로 강제 수용소의 경험은 인간이 인간적 동물종의 표본으로 바뀔 수 있고 인간의 천성은 인간에게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에서만 인간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용소는 사람들을 말살하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릴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인간 행동의 자발성 자체를 제거하고 인격을 단순한 사물로 만드는 무서운 실험실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발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삶 자체, 즉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한 완벽하게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소의 경험과 같이 철저한 자의성과 독단성은 어떤 압제권력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한다. 압제권력 하에서 의견의 자유는 자기 목숨을 걸만큼 용감한 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건드릴 수 없는 형벌만을 초래한다면 그런 자유는 무효가 된다.

(마) 판옵티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반지 모양의 원형 건물 안마당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뚫려 있고, 반지 모양의 원형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다. 독방 하나 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 뒷면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항상 빛이 통과하고 있다. 중앙의 탑에는 지그재그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죄수를 한 사람씩 감금한다. 중앙의 탑은 빛이 차단되어 있어서 감시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감자들은 역광에 의해 언제나 환하게 모습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밝은 빛은 감시자로 하여금 죄수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교묘한 통제 방식이다. 이제 감시자는 훨씬 수월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이 된 것이다.

판옵티콘의 작동방식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규율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철저하며 어디에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시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판옵티콘이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배방식으로 떠오른 규율은 신체의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노예제와 다르다. 주인의 독자적인 의지와 변덕의 형태로 유지되는 주종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와 봉건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전락했다. 이 제도들보다 크고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규율권력의 세련됨이라 할 수 있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권력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 일견 겸손하고 세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과시적 권력보다 한층 더 교활하고 무서운 권력이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권력은 절대왕정 시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될 수 있었다.

(바) 현대 사회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비가시적이거나 가상적인 구조를 통해 권력을 조직한다. 통제의 모델은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암묵적인 감시의 모델이라기보다는 모든 정체성이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적인 ‘데이터감시’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모든 정체성은 데이터 이미지로 구성된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개인성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통제 하에 놓인 실제적인 정체성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성은 각 개인의 데이터 이미지를 규정하는 통계상의 변수들에 의해 유지된다. 데이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실행되는 기반이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미지는 한 개인이 속한 경제적 지위와 국가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권리들이나 재원들, 그리고 특권들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용상태에 대한 접근까지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신체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이동적이다. 실로, 신체나 정보의 제한 없는 이동성은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매개된 모든 운동과 행위는 문서화와 전자 등록에 속한 하나의 전자 흔적을 남긴다. 전자 발찌가 채워진 죄수들처럼,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추적되고 기록된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족적은 달팽이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는 아무리 많고 빠른 탈주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권력의 지형 속으로 녹아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3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가)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3] 다음의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A기업은 B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제품은 제조상의 이유로 1,000kg 단위로 생산되며, B고객은 6개월마다 1,000kg 또는 2,000kg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 제품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생산량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원가는 kg당 15,000원이며 계약에 의하여 20,000원에 팔기로 되어 있다. 만일 B고객의 주문보다 적게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수송비까지 포함하여 kg당 24,000원이 소요된다. 이 제품은 4개월 이상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B고객이 생산량보다 적게 주문한다면 초과 생산된 제품은 kg당 5,000원에 팔아야 한다.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B고객이 1,000kg을 주문할 확률은 40%, 2,000kg을 주문할 확률은 60%로 예상된다.

[3-1] A기업이 매 6개월마다 1,000kg을 생산할 때와 2,000kg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기댓값을 비교하고, 기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제시하시오. [10점]

[3-2] B고객이 2개월 이전에 주문량을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미리 주문량을 알 경우 A기업의 이익의 기댓값이 얼마인지를 도출하고, B고객에게 kg당 얼마까지 할인이 가능한지를 설명하시오. [20점]

- 끝 -